



연/합/감/리/교/회/한/인/교/회/연/합/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hurches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회장:  
이철구목사 (동남부)

부회장:  
고한승목사 (동북부)  
림학춘목사 (서부)  
김태준목사 (중북부)  
손태원목사 (중남부)  
김에스더장로 (동부)  
안성주장로 (서부)  
황철현장로 (중남부)

총무:  
김일영목사 (동북부)

협동총무:  
신병옥목사 (서부)

서기:  
배연택목사 (동남부)  
유혁재목사 (동남부)

회계:  
김윤기목사 (중북부)  
박진원목사 (동남부)

자문위원:  
장학순목사  
류계환목사

고문위원:  
김정호목사 (동부)  
안명훈목사 (동부)  
이성철목사 (중남부)  
이성현목사 (서부)  
김광태목사 (중북부)

일자: 2019년 3월 21일  
수신: 각 연회의 한인교회 목회자/평신도  
제목: 한인교회연합회 회장 목회 서신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연합회(한교연) 회원 교회와 목회자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 연합회(이하 한교연)는 2019년 2월 23일-26일에 개최된 <연합감리교 세인트 루이스 특별 총회>를 앞두고, 한인총회 TF 팀의 제안과 연합감리교회 내 한인교회 연합회 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한 목회자들이 2019년 1월 23일, 워싱턴 제일교회(정성호 목사 시무)에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참가들은 특별 총회 이후,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대처방안 논의를 한 후, 한인교회 연합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한인교회가 연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우선 지역별 한인교회 연합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 이후 각 지역에서 한인교회 연합회가 조직되기 시작하여 2019년 1월 말까지 <한교연>에 참여 의사를 밝힌 목회자가 7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3월 4일에 뉴저지 연합교회(고한승 목사 시무)에서 열린 한인교회 연합회 창립대회 결과, 불초한 제가 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이 지면을 통해 먼저 미 전역에서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선후배 목사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특별 총회에 옵서버로 참석하여 현장에서 <인간의 성> 이슈로 우리 교단의 대의원들이 흥해가 갈라지듯 둘로 나뉘어 서로 비방하는 모습을 보며 참가심이 아팠습니다. 많은 분들이 Youtube Live Stream을 시청하며 관심을 보였고, 장학순 류계환 목사님 등이 현장 상황을 중계하듯 전했던 목회자 단독에는 130명 넘는 한인 목회자들이 연결되어 총회 결과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총회 기간 중에는 물론 지금까지 그룹에서 떠나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번 특별 총회의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교단의 혼란 속에서 한인 목회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은 특별 총회는 끝났고, 우리 한인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세인트루이스 특별 총회를 통해 현재의 장정의 기초가 지켜지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 동성애자 측에 섰던 이들 중에는 황망해 하며 통곡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품고 가는 것이 마땅한데, 교단 내의 현실은 친 동성애자 측에서 장정도 총회의 결정도 무시하고 불복종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큰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의 상심한 마음을 이해하려다가도, 다른 한편 '그렇 거면 뭐 하러 총회에 참석하여 찬반 토론을 벌이며 시간을 보낸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설상가상 장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교단의 지도자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장정을 어기는 것을 보고 있자니 말문이 막힙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고 장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 시카고,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는 친 동성애 그룹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어서, 이제는 보수신앙을 가진 목회자들이 <커밍 아웃>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이 지역의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은 앞으로 밀어닥칠 특별 총회 후폭풍에 긴장을 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한교연>은 이러한 상황을 개탄하면서, 이제는 한인교회 스스로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고 한인 목회자 스스로 자신의 신앙적/신학적 입장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전국의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목회자들이 4월 29일-5월 2일까지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리는 한인총회에 이 사안의 긴급함과 한인교회 수호의 사명을 가지고 참가하시어 <한교연>에 적극적으로 가입함으로써 한인교회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한인교회 연합이 이루어지면, <한교연>은 미 전역에 산재해 있는 한인교회들을 결집케 하는 구심점이 되어, 전통적 신앙을 지키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일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교연>이 추구할 사역의 방향을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 <한교연>은 미 전역 270여 개 한인교회와 20개 지역 연합회를 대변하며 UMC 내의 한인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국의 한인교회가 성서와 장정에 명시된 대로 신앙적 전통을 지켜나가도록 주도할 것입니다.

하나. <한교연>은 연합감리교회 장정을 준수하는 한인교회나 목회자들이 각 연회에서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 <한교연>은 협의회 소속 목회자들이 세대 간의 벽을 헐고 편안하게 교류하도록 돕는 사역들(1:1 멘토링, 크로스 스테이트 강단교류, 영성수련회...)을 시행함으로써 선배 동역자들은 존경받고 후배 동역자들은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 자부심과 희망을 가지고 사역에 임할 수 있게 힘껏 도울 것입니다.

2019년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 연합회 회장 이철구 목사 드림